

태양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통일애국투사



그날은 주체82(1993)년 3월 19일이었다. 조국에 돌아오는 민족의 장한 아들을 열차안아 맞이하는 환희와 격정의 꽃물결이 판문점에서부터 수도 평양에 이르기까지 긴 열도들에 굽어쳤다. 수많은 남녀노소들이 뿔치나와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환호를 리치었다. 그 꽃물결을 보며 연신 감격에 눈시울을 적시던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그가 바로 온 나라가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높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리인모선생이다. 그 뜻을 날로부터 아언 30년이 흘렀다. 그는 오늘 우리곁에 없다. 그러나 신미리애국렬사들의 높은 언덕에서, 그의 반신상이 높이 솟아 빛나는 통일거리에서 그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후대들의 가슴마다에 인생의 값높은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너비는 겨우 다섯뼘만, 길이는 열세뼘, 빛 한점 들지 않는다는 0.75평의 독감방. 야수의 무리들은 지옥같은 감방에 리인모선생을 처박았다. 그것도 모자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갖은 악형을 가하며 육체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감옥에서의 1만 2490여일은 단순히 한 인간이 맞고보낸 세월이 아니라 인간과 야수의 대결로 이어진 날과 달이었다.

후날 리인모선생은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겨울에는 소한, 대한이 다 지나도록 땀방울에 의한 무자비한 구타가 계속되었다. 그들은 감방문을 때고 우리를 끌어낸 뒤 옷을 훌렁 벗게 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일체로 꿰뚫어 주는 다음 공중에 매달아놓고는 동풍으로 두들겨대는 것이었다.》

고형터들이 강요한것은 단 하나 《천향》이었다.

이 두 글자를 쓰는데는 불과 몇초면 충분하다. 그러면 혹독한 고문과 감옥살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리인모선생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왜서였는가. 조국의 믿음,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 애국의 신념을 저버릴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리인모선생이 모진 옥중고초를 이겨내며 지켜낸 신념, 그것은 홀어머니 품에서 태어난 유복자이고 풍산의 막들 같은 땅국난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안겨주고 새 생활의 창조

네 가족이 백팔보다 앙상한 뼈를 감쌀 때까지 네 심장이 마지막맥박을 칠 때까지 조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라

15쪽 담장아래 죽음의 철창속에서 리인모선생이 씌어 시는 위대한 태양이 실어주고 버려준 신념을 어떻게 지키고 빛내어야 하는

태양의 따사로운 빛을 받아

기적이란 무엇인가. 아마 고목에 꽃이 핀것과 같은 리인모선생의 인생전환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황혼기인 70고령에 리인모선생은 새 생명의 종서를 받아안았다.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어 20여일이 되던 주체82(1993)년 4월 15일, 바로 그날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리인모선생을 찾으시었다.

민족최대의 명철인 자신의 탄생일에 병상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사랑에 리인모선생은 수십년간 응축되어있던 그리움과 고마움의 격정을 진하다 진한 눈물로 리트피었다.

리인모동무는 해방직후 우리 당에 입당한 도당원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수표하신 당원증을 수여해주실 때 통일애국투사를 마음속으로 웨치었다.

위대한 수령님, 전사 리인모는 수령님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형터들의 악착한 고문으로 지쳐있던 리인모는 차라리 제일 먼저 입속으로 외워보던 말-《입당년월일 1945년 10월 8일》 죽더라도 잊지 말자던 입

그러나 꿈만같은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던 그날 리인모선생은 다는 알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품으로 자기를 데려오시기 위해, 삶의 활력을 부여주시기 위해 얼마나 마음 쓰시였는가.

리인모선생이 조국의 품에 안긴지 1년이 되던 주체83(1994)년 어느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오늘도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우리 당이 1년전에 왜 리인모를 데려오려고 하였는가. 리인모로 말하면 34년동안이나 옥중에서 조국을 위해 싸운 전사이다. 아무리 정세가 긴장하고 준전시상태라고 하여도 리인모를 데려와야 우리가 혁명동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으로 된다.

우리를 믿고 30~40년을 싸워온 동지인데 우리가 그를 구원하여주지 않으면 누가 구원하여주겠는가. ...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에는 옥중 투쟁을 할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30~40년을 옥중에서 지조를 지켜 투쟁하면서 인생의 진부를 보낸 그런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나는 이것이 우리 당이 전사들에게 베풀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절절히 교시하시었다.

리인모가 살 집도 좋은 집으로 주고 료리사도 붙여 구미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자고, 리인모가 완쾌되면 로병대회 주석단의 수령님곁에 앉히고 전승기념병식장에서 주석단에 오르게 하자고, 백두산에도 가보고 고향에도 들러보게 하자고, 고향의 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애국렬사 리인모선생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화환을 보내주시었다.

학교를 리인모소학교로 명명하자고 세심하게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인생의 황금시절을 차디찬 감방속에서 고생한 리인모선생을 위해 보내주신 세월이 불이아기, 대양 건너 지구반대편의 나라에까지 보내시어 치료받게 해주신 은정, 《지옥》에서 보낸 수십여년세월을 락원에서의 행복의 시간으로 바꾸어주고싶으시어 일일이 마음써주시던 그 은혜...

하기에 리인모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너무도 똑같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에 넘치게 받아안으려 이렇게 도로하였다. -차디찬 감방에서 죽어가던 이 몸, 지맹이인생으로 시들던 이내 몸이 조국이 무엇인지, 혁명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사랑의 화신, 의리의 화신입니다. 죽어도 버릴수 없는 신념, 숨쳐도 꺾이지 않는 의지, 그것은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위대한 신념과 의지의 화신은 정녕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념을 지켜싸워 승리한 리인모 선조에게 영예의 김일성훈장, 조국통일상, 2중공화국영웅 등 최고의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고 영생의 단상에 세워주시었다.

리인모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시대에 만나 할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전형이라고,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애를 온 나라가 따라

배워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리인모선생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고 변함없이 내세워주시려는 그의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의 세계와 온 나라 인민이 리인모선생과 같은 신념의 인간, 의지의 인간으로 살며 투쟁하기를 바라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태양이 있기에 꽃도 피는 법이다. 리인모선생이 남긴 《말》 잡지의 너기자와 나누었던 당시의 대화 지금도 깊은 여운을 남기며 애아리한다.

기자: 《선생님,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리인모: 《설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34년이 아니라 그 고풍을 《지옥》에 갈까운다고 해도 나는 오직 태양의 전사로 살겠습니다. 태양은 영원합니다. 그 품에 안긴 신념의 삶도 영원합니다.》

오늘도 평양의 통일거리에 세워진 리인모선생의 반신상을 찾으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신념의 강자, 의지의 화신으로 영생하는 통일애국인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듯 하신다.

위대한 평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죽어도 그 신념 변하지 말라. 본신기자 박진홍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조선사람이 제힘으로 처음 만든 연필

주체35(1946)년 2월 3일 점심 때가 거의 된 무렵이었다. 당시 평양연필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기업가는 공장을 찾아오신 우리 민족의 영명하신 평도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그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어느덧 가까이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었다.

《송대관동무가 있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부르시는지 더욱더 놀란 그는 엉겁결에 《예, 접니다.》라고 대답을 올리였다.

《아, 송대관동무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연필만드는것을 보러 왔는데 현장으로 갑시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장안으로 들어가시었다. 말이 공장이지 살림집에 있잖은 자그마한 건물에 몇대의 기계대패와 송풍기 한대를 놓고 몇명의 로동자들이 흑연과 석탄가루를 날리며 일하고있는 작업장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업장에서 손때로 연필대의 각을 내고있는 로동자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일이 힘들지 않은가, 하루에 연필을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알아보시었다.

그러시다가 연필대로 쓸 피나 무판자를 쌓아놓는것을 보시고

《홍승으로 연필대를 만들어도 됩니다.》라고 알려주시었다. 송대관은 귀가 번쩍 뜨이였다.

그때까지 그는 피나무가 아니면 연필을 만들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피나무는 구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투자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홍승으로 할수 있다면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구해들일수 있지 않겠는가. ...

그가 이런 속구구를 하고있는데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지켜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행한 일꾼들에게 이들이 숨은 애국자들과요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연필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민족주의적 새 조선건설을 성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문제입니다.

그이의 말씀에 기업가는 자기의 인생행로가 돌이켜져 그만 눈물이 불꽃 나왔다.

왜때때 그는 정미공장들에서 나오는 사료로 되던 파는 장사거리에도 해보고 잡화상을 벌려놓기도 하였지만 조선사람들의 기업활동은 배반자본에 흡수되거나 파산을 면할수 없었다. 일제가 패망하자 여러척의 짐배에 상품을 싣고 서울로 갔지만 미국놈들이 살판치는 남조선에서 배와 상품을 모조리 빼앗기고 빈손으로 나왔게 되었다.

저주로운 땅에 침을 뱉고 평양이 돌아온 그는 두루 자금을 변통하여 자그마한 연필공장을 차

려놓았다. 왜때때는 조선에 연필공장이 없고 일본놈들이 본국에서 만들어 파는것을 써야 했으므로 연필을 만들어 팔면 돈벌이를 할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 하는 일을 타할 대신 그처럼 대진하게 여겨주시며 숨은 애국자라고 치하해주시니 감격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공장을 구축구석 빠짐없이 다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비공정을 거쳐 완성작업장에 이르러서 여러가지 색깔의 연필이 무드기 쌓여있는것을 보시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타락한 사상리론적이지로 총련과 제일조선인운동을 승리로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오늘도 총련인들과 제일동포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지금으로부터 48년전인 주체64(1975)년 3월 25일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사업과 관련한 참으로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총련인들과 제일동포들이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김일성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 하도록 하려면 중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총련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총련인들과의 애국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물론 총련애국사업의 성과여부는 총련인들에게 달려있다. 그렇다고 하여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 일꾼들이 총련사업에 무관심하여서는 안된다. 총련사업을 잘 도와주는것은 우리 일꾼들의 의무이다.

총련사업에 적극 도와주는것은 조국에서 일하는 우리 일꾼들에게 있어서 의무로 되기에 민족적자선으로 되고 동지적의리로 되여야 한다. ...

이역의 전사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잘 도와 줄데 대하여 당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로써 일꾼들은 뜨거운 마음을 삼키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사업과 회의의 첫 의정오 연필생애 문제를 상정하시었다.

본신기자 김영진

동포군중을 사회주의조국을 사랑 하는 애국력량으로 튼튼히 묶어 세우데 대한 문제 등 제일조선 인운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총련조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 하나 밝혀주시었다.

이처럼 우리 일꾼들에게 총련 사업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그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끼이 뵈옵고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총련인들은 애국운동의 방법과

어버이수령님께서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어 조직해주시고 이끌어오신 총련을 사회주의조국에 붙여준 총련애국력량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제일조선인 운동사에 쌓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총련을 수령님의 참된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길이다. 총련을 친연이고 단연이고 변함없이 수령님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이 내가 이번 서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기

본봉자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날에 하신 교시는 그대로 력사적인 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데 대하여》의 갈피마다에 주옥같은 명제로 새겨졌다.

공화국인민들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시기는 총련과 제일동포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의 시기였다. 총련의 존재를 눈으로 느끼며 애국력량을 높여준 우리 공화국이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을 철호의 기회로 삼아 총련을 허물고 제일동포들이 마음의 기쁨을 잃고 영영 주저앉게 만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시련과 난관이 천경만경으로 겹쳐들던 그 준엄한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시어 총련에 축전이 아니라 서한을 보내어 힘과 고무를 안겨주려고 결심하였다고 하시었다.

또한 일본반동들이 당치않은

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정치적탄압과 차별행위, 보수언론들의 악랄한 허위보도전전은 오늘날도 그칠새 없다.

동포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져 빼앗으려는 책동도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하지만 이토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총련은 역세게 밀려서고있으며 더욱 강해지고있다.

사회주의조국에 운명의 피를 흘리고 애국애족의 불분케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총련인들과 제일동포들의 신념과 의지의 힘으로 총련은 승리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영원히 잊지 않고 또 한분의 절세위인으로서 애국력량을 높여주시는 평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제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향해 역세게 나아가는 그들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지 못한다.

본신기자 전영민